

## 핵심신념붕괴,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 간의 관계에서 자기노출과 사회적 반응의 조절된-조절된 매개효과: 대인 외상 경험자를 중심으로

김 연 주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졸업

박 기 환<sup>†</sup>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는 대인 외상으로 인한 핵심신념붕괴가 침습적 반추를 거쳐 의도적 반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자기노출에 의한 조절된 매개효과가 사회적 반응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년 이내의 대인 외상 경험이 있고 당시의 주관적 고통을 5점 이상으로 보고하고 자기노출 경험이 있는 국내 성인 194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대인관계적 외상 체크리스트, 핵심신념붕괴 척도, 반추 척도, 자기노출 척도, 사회적 반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핵심신념붕괴,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 간 관계에서 자기노출과 부정적 반응의 조절된-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했으나, 긍정적 반응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 외상 경험자의 외상 후 성장 과정에서 사회적 반응과 같은 사회·관계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제언을 서술하였다.

주요어 : 대인 외상, 핵심신념붕괴, 반추, 자기노출, 사회적 반응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박기환 /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43

Tel: 02-2164-4924 / E-mail: psyclinic@catholic.ac.kr



Copyright ©2024,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한국여성의전화(2023)가 실시한 2022년 친밀한 관계 내 여성 폭력에 대한 상담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을 포함한 2차 피해가 있는 상담사례는 1,284건이었다. 피해자들은 경찰들로부터 “본인이 왜 그런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와 같은 피해자의 책임을 묻는 질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를 찾아와 “너도 잘못된 것이 있지 않냐?”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2020)의 학교폭력 사건 처리 절차 및 과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사례에서 중학교 3학년 때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이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너만 힘든냐? 너만 힘든 거 아니고 00이(가해 학생)도 힘들다”라는 부정적 사회적 반응을 받은 적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사례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피해 사실을 고백했을 때, 학교 측이 가해 학생 위주로 조치를 하고 피해 학생의 피해를 축소하며 억지로 화해의 분위기를 조장하는 등과 같은 부정적 사회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과 같은 사람의 고의적인 행동으로 인한 대인 외상을 경험한 사람은, 외상 경험에 대해 개방하였을 때 비대인 외상 경험자보다 부정적 사회적 반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Bonnan-White et al., 2018; Hetzel-Riggin & Roby, 2013; Ullman, 2000). 외상 경험을 고백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반응은 자기 비난과 낙인찍기와 같은 부정적 자기인지를 증가시키고, 경험한 사건을 더 이상 생각하거나 개방하지 않도록 만들어 건설적인 인지적 처리를 방해할 수 있다(Lepore, 2001; Littleton, 2010). 결과적으로 외상 후 성장으로 나아가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럼에도,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반응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대인 외상 경험자가 경험하는 사회적 반응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대인 외상이란 사람들의 고의적인 행동으로 유발된 외상 사건을 의미한다(Allen, 2005). 관계 속에서 사람에 의한 신체적 폭력, 성폭력, 정서적 폭력 등을 포괄한다(장진이, 2010). 대인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외상 유형을 경험한 사람들에 비해 더 낮은 외상 후 성장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수림, 2013; 장한, 김진숙, 2017; Shakespeare-Finch & Armstrong, 2010). 외상 후 성장이란 외상 사건 또는 극도로 버거운 삶의 상황들과 분투한 결과로 경험하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로 정의되며(Tedeschi et al., 2018), 5가지 영역에서의 긍정적 변화를 의미하는데, 그 영역은 개인적 강점(personal strength), 사람들과의 관계(relating to others), 새로운 가능성(new possibilities), 삶에 대한 감사(appreciation of life), 영적 그리고 실존적 변화(spiritual and existential change)로 이루어진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상처를 입은 대인 외상 경험자들은 관계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상 후 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 추정된다(박지은, 정남운, 2016). 이는 대인관계 관련 변인들이 대인 외상 경험자의 외상 후 성장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인 외상을 비롯한 외상 사건에 대한 외상 후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edeschi 외(2018)의 외상 후 성장 모델에 따르면, 핵심신념붕괴는 외상 후 성장의 시작을

알린다(David et al., 2022). 핵심신념붕괴는 반추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핵심신념이 붕괴되면, 외상 사건에 대한 초기의 전형적인 반응으로 침습적 반추가 발생한다. 침습적 사고는 점차 희미해져, 의도적 반추로 대체되거나 의도적 반추와 공존한다(Tedeschi et al., 2018). 반추의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변인 중 하나는 ‘자기노출’이다. 자기노출은 핵심신념붕괴와 침습적 반추로 발생하는 정서적 고통을 완화하고, 침습적 반추를 의도적 반추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외상 사건을 노출하는 것이 언제나 적응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외상 사건에 대해 개방했을 때, 비지지적인 반응을 받으면, 의도적 반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Tedeschi et al., 2018). 이처럼 외상 후 성장 모델을 통해 외상 후 성장 과정에서 핵심신념붕괴와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 자기노출, 사회적 반응과 같은 변인들이 주요하게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지진이 한 도시의 기반 시설을 해체하는 것처럼, 외상 사건은 일종의 심리적으로 지진과 같은 경험으로 작용하여, 개인의 핵심신념을 뒤흔들며 그에 대한 도전과 재평가로 이끈다(Taku et al., 2015). 핵심신념(core belief) 또는 가정적 세계(assumptive world)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지,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능력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방대한 기본 신념 체계를 의미한다(Cann et al., 2010). 외상 사건으로 발생한 핵심신념붕괴는 정서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붕괴와 고통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무엇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반복적으로 사고하는 인지적 처리, 즉 반추로 이어진다(Lindstrom et al., 2013; Tedeschi et al., 2018).

반추는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로 구분할 수 있는데, 침습적 반추란, 한 사람의 인지 세계로 외상 사건과 관련된 생각이나 이미지들이 원치 않게 침입하는 것을 말한다(Cann et al., 2011). 침습적 반추는 고통스럽게 경험되거나, 불쾌감이나 더 나쁜 것으로 경험될 수 있다(Lindstrom et al., 2013). 의도적 반추는 통제할 수 없는 침습적 반추와는 달리 자발적인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의 발생 원인과 과정, 사건으로 얻게 된 긍정적 부산물들을 이해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할 때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한다(Taku et al., 2009; Tedeschi et al., 2018). 외상 사건을 경험한 개인은 의도적 반추를 통해 기존의 가정적 세계를 사건에 맞춰 새롭게 조절(accommodation)하거나 기존의 인지적 구조에 사건을 동화(assimilation)시킨다(Freedle & Kashubeck-West, 2021). 외상 사건으로 핵심신념이 붕괴되어 침습적 반추를 경험하는 사람은 의도적 반추를 통해 핵심신념을 재건하거나 수정하게 된다. 더불어 의도적 반추를 통해 외상 경험들을 삶의 서사에 통합하려는 시도와 의미를 탐색하는 노력을 하게 되어 외상 후 성장으로 나아가게 된다(Tedeschi et al., 2018).

침습적 반추는 외상 경험을 성공적으로 통합하지 못한 사람들이 적응으로 향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한편, 심리적 부적응 또는 큰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Lepore et al., 1996; Nolen-Hoeksema et al., 1997). 침습적 반추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거나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억압하거나 회피하려고 한다면, 그 사고들을 처리하거나 다룰 적절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Lepore & Helgeson, 1998; Lepore et al., 1996).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노출이라는 변인이 제안된다. 자기노출이란 자신이 경험한 외상 사건

에 대한 생각과 감정에 대해 타인에게 언어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박준호, 2007; Tedeschi et al., 2018). 자기노출은 외상 사건과 관련된 회피와 침습적 반추, 그리고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며 비로소 사건을 이해하고 재구성할 수 있게 한다(Páez et al., 1999). 특히 자기노출은 침습적 반추가 의도적 반추로 전환되는 과정을 촉진함으로써 외상 후 성장으로 이어지는 인지적 처리의 질적인 변화를 도모한다(Tedeschi et al., 2018).

그런데 외상 사건을 노출하는 것이 언제나 적응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외상 사건과 관련된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인식할 때 노출이 후회스러울 수 있고, 상대방과 내가 정서적 유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 외상 후 고통이 발생할 수도 있다(Taku et al., 2021). 그뿐만 아니라, 외상에 대한 자기노출은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높일 수 있다(김은진, 2015; 이동훈 외, 2018; 한순희, 2023). 학대 피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자기노출은 외상 후 성장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으나, 사회적 지지와 의도적 반추를 매개하여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김민철, 허준수, 2023). 이러한 결과는 자기노출에 대한 사회적 반응의 중요성을 암시한다. 노미애(2021)의 관계상실 경험자 대상 연구에서는 침습적 반추가 의도적 반추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자기노출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에 대해 자기노출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에서 대상자들이 경험한 외상의 종류가 일관되지 않기 때문이거나, 자기노출 자체만으로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미애, 2021). 따라서 반추에 대한 자기노출의 조절효과를 탐색할 때는 일관된 외상의 종류와 다른 가능한 변인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선행연구가 제안하는 일관된 외상의 종류는 대인 외상이며, 고려할 필요가 있는 변인으로 제안되는 것 중 하나는 자기노출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다. 대인 외상 경험자는 외상 경험에 대해 노출했을 때 다른 외상 경험자보다 부정적 사회적 반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고(Bonnan-White et al., 2018; Hetzel-Riggin & Roby, 2013; Ullman, 2000), 외상 경험 개방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외상 경험자의 자기 경험에 대한 평가와 반응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Ullman & Filipas, 2001).

한편, 자기노출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란 일상적인 사회적 네트워크 구성원 및 공식적인 전문가에게 외상 경험에 대해 노출하였을 때 받는 긍정적 사회적 반응(이후 긍정적 반응으로 표기), 부정적 사회적 반응(이후 부정적 반응으로 표기)을 의미한다(Ullman, 1996). 여러 연구에 따르면, 개방에 대한 긍정적 반응의 보호적 효과는 미미한 반면, 부정적 반응의 해로운 효과가 더 큰 경향이 있었다(Campbell et al., 2001; Ullman, 1996; Ullman & Peter Hagene, 2014). 예컨대 부정적 반응은 자신을 비난하거나 스스로를 낙인찍는 것과 같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지를 늘리고 자기노출을 방해하여 적응적인 인지적 처리를 저해할 수 있다(Lepore, 2001; Littleton, 2010). 외상 경험과 그에 대한 경험자의 반응을 타당화하지 않는 비지지적인 반응을 받으면, 핵심신념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삶의 서사를 형성하는 의도적 반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Tedeschi et al.,

2018). 또한 노출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외상에 대한 직면, 심사숙고, 재평가 과정과 같은 인지적 처리를 저해함으로써 침습적 사고가 지속해서 활성화되는 상태를 초래하여(Belsher et al., 2012; Lepore & Helgeson, 1998), 의도적 반추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반면 긍정적 반응은 외상 이후 증상이나 믿음, 심리적 적응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Andrews et al., 2003; Davis et al., 1991; Orchowski & Gidycz, 2015; Ullman, 1996; Ullman & Relyea, 2016; Zoellner et al., 1999).

노출에 대한 부정적 반응의 역할은 여러 경험적 근거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성폭력 생존자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 밝힐 때 부정적 반응이 적을수록 새로운 인지 체계를 만들어 가는 의도적 반추가 촉진될 수 있었고(이하나, 2016), 침습적 사고를 경험하는 유방암 환자가 외상 경험에 대해 노출할 때, 비지지적 반응이 적은 환경일수록 숙고적 인지적 처리로 이어질 수 있었다(Koutrouli et al., 2016). 데이트 폭력 및 성폭력 관련 훈련 프로그램 관련 연구에 따르면, 외상 경험 노출에 대한 긍정적 반응은 늘리고 부정적 반응은 줄이는 것을 목표로 비공식 지원가들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인

Supporting Survivors and Self(SSS)개입이 인지와 정서의 변화를 포함한 외상 후 증상의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Edwards et al., 2021).

따라서 본 연구는 외상의 결과와 유의미한 관련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밝혀진 긍정적 반응보다는 외상의 인지적 처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진 부정적 반응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다만 긍정적 반응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가설과 분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대인 외상으로 인한 핵심신념붕괴가 침습적 반추를 거쳐 의도적 반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자기노출의 효과에 대한 사회적 반응의 역할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정적 반응과 긍정적 반응이 각각 핵심신념붕괴가 침습적 반추를 거쳐 의도적 반추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자기노출의 효과를 조절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부정적 반응이 적거나 긍정적 반응이 많으면서 자기노출 수준이 높을 때, 핵심신념붕괴가 침습적 반추를 거쳐 의도적 반추로 이어질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변인 간 관계를 그림 1의 연구 모형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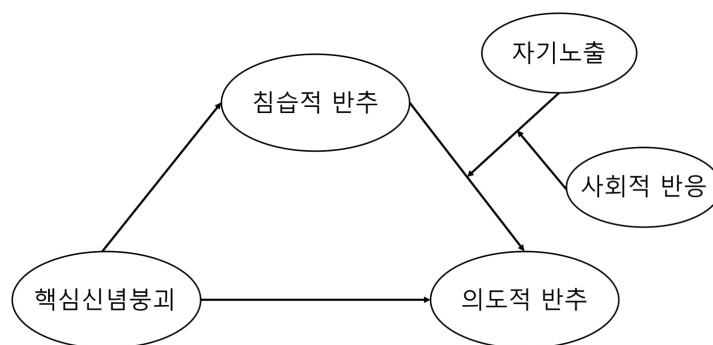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대인 외상 사건을 경험한 만 18세 이상의 국내 성인들을 대상으로 2023년 7월 28일부터 2023년 8월 7일까지 각 대학교의 에브리타임, 캠퍼스픽, 온라인 카페, 오픈 카카오톡,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온라인 자기 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17부를 수집하였고 대인 외상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52부를 제외하였다. 외상 사건 발생 당시의 주관적 고통 수준을 보통(4점) 이하로 보고한 응답을 제외한 선행연구(고은심, 이민규, 2018; 김가령 외, 2018; 박애실, 2016)에 따라, 당시의 주관적 고통 수준을 4점 이하로 응답한 자료 11부를 제외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는 자료 1부, 불성실 응답 자료 7부, 중복 응답 자료 2부, 자기노출을 0점으로 보고한 자료 13부를 제외하였다. 성별에서 여성과 남성의 두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자료 3부는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또한 20년 전 이상의 대인 외상을 바탕으로 응답한 자료의 경우, 신뢰로운 측정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20년 전 이상의 자료를 배제한 선행연구(설지윤 외, 2019; 정유지, 2016)를 참고하여, 해당 자료 34부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수집된 자료 317부에서 총 123부가 제외되어 194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 측정도구

#### 대인관계적 외상 체크리스트

대인 외상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Foa 외

(1997)가 개발한 척도에 장진이(2010)가 대인 외상 유형을 세분화하여 추가한 목록과 송승훈(2007)의 질문지를 신선영(2009)이 보완한 질문지의 문항들을 조합·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지금까지 경험한 사람의 고의적인 행동으로 인한 사건 중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경험을 3가지 대인 외상 범주로 구분되는 13가지 대인 외상 사건에서 모두 표시하도록 하였다. 표시한 사건 중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건을 하나만 선택해서 번호를 적고, 어떤 경험이었는지 간략하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후 모든 설문 문항에 대해 앞서 선택한 대인 외상 사건을 떠올리며 응답하도록 지시하였다. 발생한 시기를 응답하게 하였고, 대인 외상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와 최근의 고통을 7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다 ~ 7 = 매우 고통스러웠다)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 핵심신념붕괴 척도(Core Beliefs Inventory: CBI)

핵심신념붕괴를 측정하기 위해 Cann 외(2010)가 개발하고 이유경(2019)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외상 사건으로 인해 자신,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이 얼마나 변화했는가를 측정한다.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문항이고, 6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 6 =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유경(2019)의 연구에서 보고한 전체 문항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1이었다. 또한 이유경(2019)의 연구에서 한국판 핵심신념붕괴 척도는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r = .26, p < .001$ ) 및 외상 후 성장 척도( $r = .63, p < .0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삶의 만족도 척도

와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r = .08, ns$ ).

#### 한국판 사건관련 반추 척도(Korean Version of 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 K-ERRI)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를 측정하기 위해 Cann 외(2011)가 개발하고 안현의 외(2013)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주요 생활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 후 발생하는 인지적인 과정인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로 2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문항이고, 4점 리커트 척도(0 = 전혀 그렇지 않다 ~ 3 = 자주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하위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반추 양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안현의 외(2013)의 연구에서 보고한 전체 문항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5이었으며, 침습적 반추는 .96, 의도적 반추는 .95의 내적 합치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 내적 합치도는 .91, 침습적 반추는 .92, 의도적 반추는 .91로 나타났다. 안현의 외(2013)의 연구에서, 침습적 반추는 한국판 반추적 반응척도(K-RRS)( $r = .32, p < .01$ )와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척도(CERQ)의 역기능적 양식( $r = .60, p < .01$ )과 정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 CERQ의 기능적 양식( $r = .09, ns$ )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도적 반추는 K-RRS( $r = .16, p < .01$ )와 CERQ의 기능적 양식( $r = .44, p < .01$ ), 역기능적 양식( $r = .44, p < .01$ ) 모두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 자기노출 척도

자기노출을 측정하기 위해 박준호(2007)가 개발한 자기노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스

트레스를 유발시킨 사건과 그 사건으로 경험한 감정이나 느낌에 관해서 타인에게 털어놓고 이야기한 정도, 빈도, 깊이 등의 수준을 측정한다. 단일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0문항, 7점 리커트 척도(0 = 전혀 털어놓지 않았음 ~ 6 = 매우 많이 털어 놓았음)로 구성되어 있다. 박준호(2007)의 연구에서 보고한 전체 문항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7이었으며,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도 .97이었다. 박준호(2007)가 자기노출 척도의 요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요인 모형이 적절하였고, 총 설명변량은 전체변량의 77.7%를 차지했다.

#### 한국판 외상 경험 개방에 대한 사회적 반응 척도(Korean Version of the Social Reactions Questionnaire: K-SRQ)

자기노출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외상 경험 개방에 대한 사회적 반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Ullman(2000)이 성폭행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험을 타인에게 공개하였을 때 얻는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국내에서 심기선과 안현의(2014)가 대인 외상 경험자에게 확장 적용하여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이다. 대인 외상 경험자가 외상 경험을 타인에게 개방하였을 때 얻는 반응을 측정한다. 긍정적 반응(정서적지지, 실질적 도움)과 부정적 반응(낙인찍기, 방해하기, 통제하기, 피해자 비난하기, 자기중심적 반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4문항이고, 5점 리커트 척도(0 = 전혀 그렇지 않다 ~ 4 = 항상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심기선과 안현의(2014)의 연구에서 보고된 하위 척도들의 내적 합치도는 .76에서 .96의 범위였으며, 부정적 반응의 내적 합치도는 .90이었고 긍정

적 반응의 내적 합치도는 .95이었다. 본 연구에서 부정적 반응의 내적 합치도는 .97, 긍정적 반응의 내적 합치도는 .93으로 나타났다. 심기선과 안현의(2014)의 연구에서, 긍정적 반응은 사회적 지지와 중간 수준의 정적 상관( $r = .26 \sim .51, p < .01$ ), 자존감을 측정하는 척도(RSE)와도 중간 수준의 정적 관련성( $r = .24 \sim .39, p < .01$ )을 나타냈다. 부정적 반응은 5개 하위요인 중 자기중심적 반응을 제외한 4개 요인이 사회적 지지와 중간 수준의 부적 상관( $r = -.21 \sim r = -.38, p < .01$ ), 자존감 척도와 약한 혹은 중간 수준의 부적 상관( $r = -.15 \sim r = -.35, p < .01$ )을 보였다.

#### 자료 분석

SPSS Statistics 29.0, PROCESS macro v4.2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대상자들이 경험한 대인 외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진행하고, 주요 변인 간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외상 관련 변인에 따른 주요 변인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 Welch's  $t$ 검정,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시행하였다. 핵심신념붕괴,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 간 관계에 대한 자기노출과 사회적 반응의 조절된-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v4.2의 Model 18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표본은 10,000번을 추출하여 분석하였고, 95% 신뢰구간(confidential interval)을 적용하였다. 또한 통계치의 해석이 용이하도록 값을 평균중심화하였다.

## 결 과

###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대인 외상 사건 유형을 다중 응답하게 한 결과, 한 가지 외상 사건을 경험한 대상자는 107명(55.2%), 두 가지 이상의 외상 사건을 경험한 대상자는 87명(44.8%)으로 확인되었다. ‘학창 시절 또래에 의한 심각한 괴롭힘, 집단 따돌림, 협박’이 88건(26.4%)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대인 외상 사건 유형(다중응답) 중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에 의한 심한 욕설, 협박, 무시, 무관심이 48건(14.4%)으로 많이 보고되었고, 학창 시절 또래에 의한 심각한 신체적 폭행이 47건(14.1%)으로 뒤따랐다. 연구대상자가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응답한 대인 외상 사건의 유형(단일응답) 중 가장 많이 보고된 것 역시 ‘학창 시절 또래에 의한 심각한 괴롭힘, 집단 따돌림, 협박’으로, 69건(35.6%)이 보고되었다. 이어서 학창 시절 또래에 의한 심각한 신체적 폭행이 25건(12.9%)으로 많이 보고되었고, 가정 내 부모 혹은 형제자매 간의 반복적인 심각한 싸움 목격이 23건(11.9%)으로 뒤를 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이 보고한 가장 고통스러운 대인 외상 사건의 발생 시기를 살펴보면, 3년 ~ 10년 전이 87건(44.8%)으로 가장 많았고, 10년 ~ 20년 전이 65건(33.5%)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보통이다(4점)’ 이하로 보고한 자료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대인 외상 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고통 수준의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본 결과, ‘매우 고통스러웠다(7점)’가 122명(62.9%)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대인 외상 사건으



로 인한 현재의 고통 수준에 대해서는, ‘5점’이 61명(31.4%)으로 가장 높은 빈도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핵심신념붕괴,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 자기노출, 부정적 반응, 긍정적 반응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의 왜도는 -.96 ~ .34, 첨도는 -.91 ~ 1.40의 범주에 분포하였다. 왜도의 절댓값이 2 미만, 첨도의 절댓값이 7 미만일 때 정규분포를 따르므로(Curran et al., 1996), 주요 변인들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Pearson의 상관분석 결과, 핵심신념붕괴와 부정적 반응 간의 관계( $r = -.08, ns$ ), 침습적 반추와 자기노출 간의 관계( $r = .13, ns$ ), 침습적 반추와 긍정적 반응 간의 관계( $r = .11, ns$ ), 부정적 반응과 긍정적 반응 간의 관계( $r = -.02, ns$ )를 제외하고 모든 변인들 사이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핵심신념붕괴는 침습적 반추( $r = .20, p < .01$ ), 자기노출( $r =$

$.32, p < .001$ ), 긍정적 반응( $r = .48, p < .001$ ), 의도적 반추( $r = .60, p < .0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침습적 반추는 부정적 반응( $r = .24, p < .001$ ), 의도적 반추( $r = .32, p < .0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기노출은 부정적 반응( $r = .18, p < .05$ ), 긍정적 반응( $r = .48, p < .001$ ), 의도적 반추( $r = .42, p < .0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부정적 반응과 의도적 반추( $r = .24, p < .001$ ) 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긍정적 반응과 의도적 반추( $r = .37, p < .001$ ) 사이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외상 변인에 따라 주요 변인들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 Welch's  $t$ 검정,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먼저 외상 후 성장 점수가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높게 보고된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윤명숙, 김남희, 2013; 임선영, 권석만, 2013; Gerber et al., 2011), 성별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N = 194)

	1	2	3	4	5	6
1. 핵심신념붕괴						
2. 침습적 반추	.20**					
3. 자기노출	.32***	.13				
4. 부정적 반응	-.08	.24***	.18*			
5. 긍정적 반응	.48***	.11	.48***	-.02		
6. 의도적 반추	.60***	.32***	.42***	.24***	.37***	
M	34.68	18.74	32.48	35.73	47.38	17.17
SD	8.44	7.07	14.70	47.38	13.64	7.74
왜도	-.79	-.49	-.47	.34	-.96	-.42
첨도	.12	-.41	-.59	-.91	1.40	-.57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2.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

	독립표본 <i>t</i> 검정		<i>t</i>
	여성( <i>n</i> = 123)	남성( <i>n</i> = 71)	
	<i>M</i> ( <i>SD</i> )	<i>M</i> ( <i>SD</i> )	
핵심신념붕괴	35.63( 8.46)	33.01( 8.20)	2.10*
자기노출	33.21(15.29)	31.23(13.62)	.91
부정적 반응	31.63(24.32)	42.85(20.76)	-3.26**
긍정적 반응	49.07(13.61)	44.46(13.30)	2.29*

	Welch's <i>t</i> 검정		<i>t</i>
	여성( <i>n</i> = 123)	남성( <i>n</i> = 71)	
	<i>M</i> ( <i>SD</i> )	<i>M</i> ( <i>SD</i> )	
침습적 반추	18.91( 7.65)	18.44( 5.98)	.48
의도적 반추	17.87( 8.18)	15.96( 6.80)	1.75

\**p* < .05, \*\**p* < .01.

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핵심신념붕괴, 부정적 반응, 긍정적 반응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핵심신념붕괴 점수와 긍정적 반응 점수를 보고했고,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부정적 반응 점수를 보고했다.

다음으로 외상 후 성장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을 강조한 연구(De Castella & Simmonds, 2013; Linley & Joseph, 2004)와 종교가 있는 참가자가 없는 참가자보다 외상 후 성장 점수를 더 높게 보고한 선행연구(김나현, 김정민, 2021; 김시형 외, 2020; 송란 외, 2021)에 근거하여 종교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3에서 보듯이, 핵심신념붕괴와 자기노출, 긍정적 반응, 의도적 반추에서 종교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핵

심신념붕괴 점수, 자기노출 점수, 긍정적 반응 점수, 의도적 반추 점수를 더 높게 보고했다.

이어서 외상 사건 이후 경과한 시간이 외상 후 성장과 유의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임선영, 권석만, 2013; 최승미, 2008)를 참고하여 경과 시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자기노출에서 경과 시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년 ~ 3년 전에 대인 외상 사건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사람들이 6개월 이내에 대인 외상 사건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기노출 점수를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외상 사건에 대한 현재 주관적 고통 수준이 외상 후 성장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김명지, 2019; 심술지, 주은선, 2022)를 바탕으로 현재 주관적 고통 수준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당시의 주관적 고통 수준이 보통(4점) 이하인

표 3. 종교의 유무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

	있다( <i>n</i> = 71)		없다( <i>n</i> = 123)		<i>t</i>
	<i>M</i> ( <i>SD</i> )		<i>M</i> ( <i>SD</i> )		
핵심신념붕괴	36.34( 8.09)		33.72( 8.52)		2.10*
침습적 반추	19.18( 7.56)		18.48( 6.79)		.67
자기노출	37.06(13.75)		29.85(14.63)		3.38***
부정적 반응	36.85(25.39)		35.09(22.68)		.50
긍정적 반응	50.80(11.95)		45.41(14.20)		2.70*
의도적 반추	18.94( 7.46)		16.15( 7.75)		2.46*

\*  $p < .05$ , \*\*\*  $p < .001$ .

표 4. 경과 시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

	한달 이내 <sup>a</sup> ( <i>n</i> = 4)	6개월 이내 <sup>b</sup> ( <i>n</i> = 6)	7개월 ~ 12개월 전 <sup>c</sup> ( <i>n</i> = 5)	1년 ~ 2년 전 <sup>d</sup> ( <i>n</i> = 6)	2년 ~ 3년 전 <sup>e</sup> ( <i>n</i> = 21)	3년 ~ 10년 전 <sup>f</sup> ( <i>n</i> = 87)	10년 ~ 20년 전 <sup>g</sup> ( <i>n</i> = 65)	<i>F</i>	<i>Scheffe</i>
	<i>M</i> ( <i>SD</i> )	<i>M</i> ( <i>SD</i> )	<i>M</i> ( <i>SD</i> )	<i>M</i> ( <i>SD</i> )	<i>M</i> ( <i>SD</i> )	<i>M</i> ( <i>SD</i> )	<i>M</i> ( <i>SD</i> )		
핵심신념 붕괴	39.75 ( 6.95)	34.33 (12.85)	38.40 ( 6.84)	33.33 (12.75)	36.57 ( 7.62)	33.17 ( 8.38)	35.63 ( 7.96)	1.21	ns.
침습적 반추	22.75 ( 7.14)	21.50 ( 8.73)	18.80 ( 5.17)	21.17 ( 7.11)	22.00 ( 3.74)	17.76 ( 6.66)	18.26 ( 8.11)	1.58	ns.
자기 노출	21.75 (12.76)	9.67 (10.86)	27.60 (15.26)	31.83 (12.53)	40.52 (12.66)	32.71 (13.23)	32.78 (15.60)	4.32***	e > b
부정적 반응	30.25 (19.72)	31.67 (23.51)	37.40 (22.55)	27.00 (13.75)	36.48 (19.00)	37.80 (21.53)	34.11 (28.71)	.36	ns.
긍정적 반응	43.50 (17.71)	44.17 (19.53)	47.40 (15.11)	43.00 (15.38)	51.86 (11.28)	44.54 (13.09)	50.68 (13.47)	1.90	ns.
의도적 반추	17.75 ( 5.68)	16.17 (10.38)	12.80 ( 9.04)	17.50 (10.67)	21.62 ( 7.58)	15.83 ( 7.06)	17.89 ( 7.80)	2.04	ns.

\*\*\*  $p < .001$ .

응답을 제외한 선행연구(고은심, 이민규, 2018; 김가령 외, 2018; 박애실, 2016)를 참고하여, 현재 고통 수준을 1점 ~ 4점으로 보고한 사람들을 ‘낮은 현재 고통’ 집단으로, 5점 ~ 7점으로 보고한 사람들을 ‘높은 현재 고통’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표 5에서처럼, 부정적 반

응, 의도적 반추, 침습적 반추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높은 현재 고통 집단이 낮은 현재 고통 집단보다 높은 부정적 반응, 높은 의도적 반추, 높은 침습적 반추 점수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분석에서 성별, 종교의 유무, 경과 시간을 더미

표 5. 현재 고통 수준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

독립표본 <i>t</i> 검정			
	낮은 현재 고통 ( <i>n</i> = 72)	높은 현재 고통 ( <i>n</i> = 122)	<i>t</i>
	<i>M</i> ( <i>SD</i> )	<i>M</i> ( <i>SD</i> )	
자기노출	32.18(16.06)	32.66(13.90)	-.22
부정적 반응	27.26(21.42)	40.73(23.57)	-3.97***
긍정적 반응	48.43(12.22)	46.76(14.43)	.82
의도적 반추	15.75( 7.48)	18.01( 7.80)	-1.98*

Welch's <i>t</i> 검정			
	낮은 현재 고통 ( <i>n</i> = 72)	높은 현재 고통 ( <i>n</i> = 122)	<i>t</i>
	<i>M</i> ( <i>SD</i> )	<i>M</i> ( <i>SD</i> )	
핵심신념붕괴	34.71( 7.29)	34.66( 9.08)	.04
침습적 반추	14.19( 7.27)	21.42( 5.41)	-7.32***

\*  $p < .05$ , \*\*\*  $p < .001$ .

변수로 변환 후 현재 고통 수준과 함께 공변 인으로 투입하여 통제하였다.

부정적 반응에 대한 조절된-조절된 매개효과

핵심신념붕괴가 침습적 반추를 매개하여 의도적 반추에 미치는 영향에 자기노출이 조절하는 효과가 부정적 반응 또는 긍정적 반응의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18을 사용하여 조절된-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Hayes, 2018).

부정적 반응을 투입하여 조절된-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핵심신념붕괴는 침습적 반추( $B = .13, t = 2.84, p < .01$ )와 의도적 반추( $B = .52, t = 10.26, p < .001$ )를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하였고, 침습적 반추는 의도적 반추를( $B = .07,$

$t = .89, ns$ )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자기노출의 효과를 부정적 반응이 조절하는, 조절된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침습적 반추 × 자기노출 × 부정적 반응의 삼원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B = -.0005, t = -2.84, p < .05$ ),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 사이를 자기노출이 조절하는 효과를 부정적 반응이 유의하게 다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정적 반응의 조절된 조절효과들의 구체적 양상을 부정적 반응의 수준이 변화하는 경우와 부정적 반응과 자기노출 수준이 모두 변화하는 경우에 따라 살펴보았다. 이어서 자기노출과 부정적 반응의 조절된-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았고, 조절된-조절된 매개효과의 세부적 양상을 부정적 반응의 수준이 변화하는 경우와 부정적 반응과 자기노출 수준이

표 6. 핵심신념붕괴,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의 관계에서 자기노출과 부정적 반응의 조절된-조절된 매개 효과

	종속변인: 침습적 반추				
	B	SE	t	95% CI	
				LLCI	ULCI
성별	.61	.83	.73	-1.03	2.24
종교	.27	.82	.33	-1.34	1.88
경과 시간_한 달 이내	-.32	2.81	-.11	-5.86	5.22
경과 시간_6개월 이내	2.51	2.30	1.09	-2.02	7.04
경과 시간_7개월 ~ 12개월 전	-2.11	2.50	-.84	-7.05	2.83
경과 시간_1년 ~ 2년 전	-.06	2.33	-.02	-4.65	4.54
경과 시간_2년 ~ 3년 전	2.57	1.37	1.88	-.13	5.27
경과 시간_3년 ~ 10년 전	-1.18	.90	-1.31	-2.96	.60
현재 고통	2.66	.24	11.19***	2.19	3.13
핵심신념붕괴	.13	.05	2.84**	.04	.23
$R^2 = .45, F(10, 183) = 15.21^{***}$					
	종속변인: 의도적 반추				
	B	SE	t	95% CI	
				LLCI	ULCI
성별	1.83	.84	2.19*	.18	3.49
종교	.68	.84	.82	-.97	2.34
경과 시간_한 달 이내	-1.52	2.80	-.54	-7.05	4.02
경과 시간_6개월 이내	-.59	2.38	-.25	-5.29	4.12
경과 시간_7개월 ~ 12개월 전	-7.00	2.46	-2.85*	-11.86	-2.15
경과 시간_1년 ~ 2년 전	.13	2.30	.06	-4.41	4.67
경과 시간_2년 ~ 3년 전	1.32	1.40	.94	-1.45	4.08
경과 시간_3년 ~ 10년 전	-1.74	.93	-1.87	-3.58	.09
현재 고통	.57	.31	1.84	-.04	1.17
핵심신념붕괴	.52	.05	10.26***	.42	.62
침습적 반추	.07	.08	.89	-.09	.23
자기노출	.06	.04	1.79	-.01	.14
부정적 반응	.10	.02	5.15***	.06	.14

표 6. 핵심신념붕괴,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의 관계에서 자기노출과 부정적 반응의 조절된-조절된 매개 효과 (계속)

	종속변인: 침습적 반추				
	B	SE	t	95% CI	
				LLCI	ULCI
침습적 반추 × 자기노출	.002	.004	.42	-.01	.01
침습적 반추 × 부정적 반응	-.0001	.003	-.03	-.01	.01
자기노출 × 부정적 반응	-.003	.001	-2.51*	-.01	-.001
침습적 반추 × 자기노출 × 부정적 반응	-.0005	.0002	-2.84*	-.001	-.0001
$R^2 = .59, F(17, 176) = 14.63^{***}$					
조절된 조절된 매개지수 (Index of moderated moderated mediation)	BootSE	95% CI			
		LLCI	ULCI		
-.0001	.00004	-.0001	-.00001		

\*  $p < .05$ , \*\*  $p < .01$ , \*\*\*  $p < .001$ .

모두 변화하는 경우에서 확인하였다.

먼저 부정적 반응 수준이 변화할 때,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의 관계에 대한 자기노출의 조절효과를 의미하는 조절된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부정적 반응의 세 지점(-1SD, 평균, +1SD)에서의 자기노출의 조건부 조절효과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 반응의 수준이 낮아질수록 자기노출의 조건부 조절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반응의 일부 수준에서만 자기노출의 조건부 조절효과가 유의했는데, 부정적 반응이 낮은 경우에는 자기노출의 조건부

조절효과가 유의했지만( $B = .01, F(1, 176) = 12.20, p < .01$ ), 부정적 반응이 평균 수준이거나 높은 경우에는 자기노출의 조건부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정적 반응이 낮을 때 자기노출이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 사이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부정적 반응 수준과 자기노출 수준이 변화할 때, 부정적 반응의 조절된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앞선 분석에서 부정적 반응의 수준이 낮을 경우에만 자기노출의 조건부 조절효과가 유의했으므로, 부정적 반응의

표 7. 부정적 반응 수준에 따른 자기노출의 조건부 조절효과

부정적 반응	B	F	df1	df2	p
-23.66 (-1SD)	.01	12.20	1	176	.001
0. (M)	.002	.18	1	176	.68
23.66 (+1SD)	-.01	1.62	1	176	.20

수준이 낮은 경우에서만 분석을 진행하였다. 부정적 반응 수준이 낮은 경우에 자기노출의 -1SD, 평균, +1SD에서 침습적 반추의 조건부 효과를 살펴본 결과를 표 8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부정적 반응이 낮은 경우에 있어, 자기노출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침습적 반추의 조건부 효과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부트스트래핑 결과, 자기노출의 +1SD 지점에서 하한 값(LLCI = .06)과 상한 값(ULCI = .48)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침습적 반추의 조건부 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부정적 반응의 수준이 낮고 자기노출의 수준이 높을 때 의도적 반추에 대한 침습적 반추의 조건부 효과가 유의했다.

그 다음 부정적 반응에 대한 조절된-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조절된-조절된 매개지수를 확인하였다. Hayes(2018)에 따르면, 조절된-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조절된-조절된

표 8. 낮은 부정적 반응 조건에서 자기노출 수준에 따른 조건부 효과

조절변인		B	SE	95% CI	
자기노출	부정적 반응			LLCI	ULCI
-14.70 (-1SD)	-23.66	-.12	.10	-.31	.07
0. (M)	-23.66	.07	.08	-.09	.24
14.70 (+1SD)	-23.66	.27	.10	.06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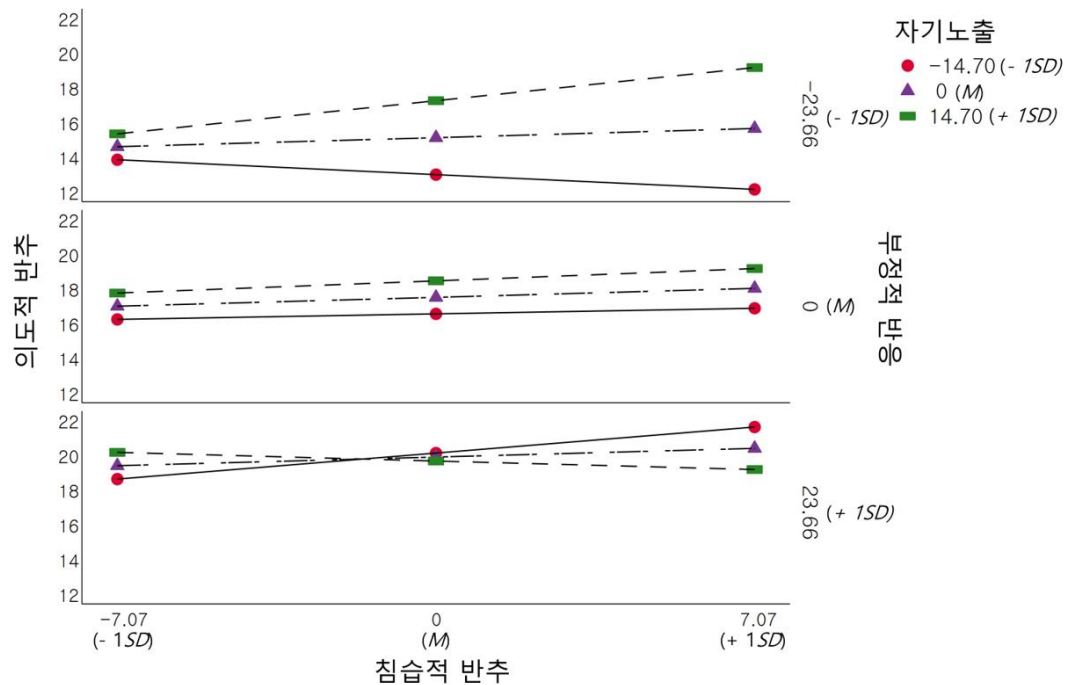


그림 2. 부정적 반응과 자기노출 수준에 따른 조건부 효과 그래프

매개지수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효과의 패턴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해서는 제 2조절변인의 다양한 값에서 제 1조절변인에 의한 조건부 조절된 매개지수를 확인하거나 제 1조절변인의 다양한 값에서 제 2조절변인에 의한 조건부 조절된 매개지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도 이 방법을 따라, 제 2조절변인인 부정적 반응의 다양한 값에서 제 1조절변인인 자기노출에 의한 조건부 조절된 매개지수를 확인하였다. 조절된-조절된 매개지수는 앞선 표 6 하단에 제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 결과,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핵심신념붕괴가 침습적 반추를 매개로 의도적 반추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노출이 조절하는 관계에서 부정적 반응이 조절하는 조절된-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부정적 반응 수준이 변화할 때, 조절

된-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부정적 반응의 세 지점(- 1SD, 평균, + 1SD)에서의 자기노출에 의한 조건부 조절된 매개효과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부정적 반응의 수준이 낮아질수록 조건부 조절된 매개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정적 반응이 - 1SD인 경우에만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효과가 유의하였다. 부정적 반응의 평균, + 1SD 지점에서는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여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핵심신념붕괴가 침습적 반추를 매개하여 의도적 반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노출에 의한 조절된 매개효과는 부정적 반응 수준이 낮은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어서 부정적 반응과 자기노출 수준이 모두 변화할 때, 조절된-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조건부 조절된 매개지수가

표 9. 부정적 반응 수준에 따른 조건부 조절된 매개효과

부정적 반응	조절변인에 의한 조건부 조절된 매개지수 (Index of conditional moderated mediation by 자기노출)	BootSE	95% CI	
			LLCI	ULCI
-23.66 (- 1SD)	.002	.001	.0003	.004
0. (M.)	.0002	.001	-.001	.002
23.66 (+ 1SD)	-.001	.001	-.004	.001

표 10. 낮은 부정적 반응 조건에서 자기노출 수준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

조절변인		B	BootSE	95% CI	
자기노출	부정적 반응			LLCI	ULCI
-14.70 (- 1SD)	-23.66	-.02	.02	-.05	.01
0. (M.)	-23.66	.01	.01	-.01	.04
14.70 (+ 1SD)	-23.66	.04	.02	.005	.09



유의했던, 낮은 부정적 반응의 경우에 있어 자기노출의 수준에 따른 핵심신념붕괴의 조건부 간접효과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부정적 반응의 수준이 낮을 때, 자기노출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의도적 반추에 대한 핵심신념붕괴의 조건부 간접효과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부트스트래핑 결과, 자기노출이 +1SD인 경우에 하한 값(LLCI = .005)과 상한 값(ULCI = .09)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핵심신념붕괴의 조건부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자기노출 수준이 평균 수준일 때와 +1SD 수준일 때에는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여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정리하면, 부정적 반응 수준이 낮고 자기노출 수준이 높을 때만 핵심신념붕괴와 의도적 반추 간 관계를 침습적 반추가 매개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긍정적 반응에 대한 조절된-조절된 매개효과

다음으로 앞선 분석방식과 동일하게, 긍정적 반응에 대한 조절된-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11에 따르면, 핵심신념붕괴가 침습적 반추( $B = .13, t = 2.84, p < .01$ )와 의도적 반추( $B = .47, t = 7.92, p < .001$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침습적 반추는 의도적 반추( $B = .05, t = .61, ns$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음으로 자기노출의 조절효과에 대한 긍정적 반응의 효과인 조절된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침습적 반추 × 자기노출 × 긍정적 반응의 삼원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B = .0004, t = 1.84, ns$ ),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의 관계에 대한 자기노출의 조절효과를 긍정적 반응이 다시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1. 핵심신념붕괴,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의 관계에서 자기노출과 긍정적 반응의 조절된-조절된 매개효과

	종속변인: 침습적 반추				
	B	SE	t	95% CI	
				LLCI	ULCI
성별	.61	.83	.73	-1.03	2.24
종교	.27	.82	.33	-1.34	1.88
경과 시간_한 달 이내	-.32	2.81	-.11	-5.86	5.22
경과 시간_6개월 이내	2.51	2.30	1.09	-2.02	7.04
경과 시간_7개월 ~ 12개월 전	-2.11	2.50	-.84	-7.05	2.83
경과 시간_1년 ~ 2년 전	-.06	2.33	-.02	-4.65	4.54
경과 시간_2년 ~ 3년 전	2.57	1.37	1.88	-.13	5.27
경과 시간_3년 ~ 10년 전	-1.18	.90	-1.31	-2.96	.60
현재 고통	2.66	.24	11.19***	2.19	3.13
핵심신념붕괴	.13	.05	2.84**	.04	.23

$R^2 = .45, F(10, 183) = 15.21^{***}$

표 11. 핵심신념붕괴,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의 관계에서 자기노출과 긍정적 반응의 조절된-조절된 매개 효과 (계속)

	종속변인: 의도적 반추				
	B	SE	t	95% CI	
				LLCI	ULCI
성별	1.10	.89	1.24	-.65	2.85
종교	.76	.90	.84	-1.02	2.54
경과 시간_한 달 이내	-1.95	3.00	-.65	-7.87	3.98
경과 시간_6개월 이내	1.35	2.63	.51	-3.85	6.55
경과 시간_7개월 ~ 12개월 전	-6.89	2.67	-2.58*	-12.15	-1.63
경과 시간_1년 ~ 2년 전	-.88	2.47	-.35	-5.75	3.99
경과 시간_2년 ~ 3년 전	1.78	1.48	1.21	-1.14	4.70
경과 시간_3년 ~ 10년 전	-1.66	.99	-1.68	-3.61	.29
현재 고통	.80	.32	2.47*	.16	1.44
핵심신념붕괴	.47	.06	7.92***	.35	.58
침습적 반추	.05	.08	.61	-.11	.22
자기노출	.12	.04	3.54**	.06	.19
긍정적 반응	-.05	.04	-1.20	-.14	.03
침습적 반추 × 자기노출	.01	.004	1.61	-.002	.02
침습적 반추 × 긍정적 반응	.01	.01	1.71	-.001	.02
자기노출 × 긍정적 반응	-.002	.002	-1.13	-.01	.002
침습적 반추 × 자기노출 × 긍정적 반응	.0004	.0002	1.84	-.00003	.001
$R^2 = .52, F(17, 176) = 11.21^{***}$					
조절된 조절된 매개지수 (Index of moderated moderated mediation)		BootSE	95% CI		
			LLCI	ULCI	
		.0001	-.00002	.0002	

\* $p < .05$ , \*\* $p < .01$ , \*\*\* $p < .001$ .

긍정적 반응에 대한 조절된-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조절된-조절된 매개지수는 표 11 하단에 제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 결과,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여 자기노출

에 의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긍정적 반응이 조절하는 조절된-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 논 의

본 연구는 대인 외상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핵심신념붕괴가 침습적 반추를 거쳐 의도적 반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자기노출이 조절하는 효과에 대한 사회적 반응의 역할을 알아보 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반응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사회적 반응은 핵심 신념붕괴가 침습적 반추를 거쳐 의도적 반추 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자기노출의 효과 를 다시 조절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구체적 으로 부정적 반응이 적거나 긍정적 반응이 많 으면서 자기노출 수준이 높을 때, 침습적 반 추가 핵심신념붕괴와 의도적 반추 사이를 매 개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논의하기 전에, 대인 외 상으로 인한 현재의 주관적 고통 수준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먼저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높은 현재 고통 집단이 낮은 현재 고통 집단보다 높은 부정적 반응, 높은 의도적 반추, 높은 침습적 반추를 보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 외상 노출에 대 한 부정적 반응이 적응적인 인지적 처리를 방해하여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부합한다(Belsher et al., 2012; Lepore, 2001; Lepore & Helgeson, 1998; Littleton, 2010; Tedeschi et al., 2018). 또한 침습적 반추가 고통 으로 경험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Lindstrom et al., 2013). 한편, 높은 현재 고통 집단이 높은 의도적 반추를 보고한 이유는 의 도적 반추가 고통과 외상 후 성장 모두를 동 반하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Tedeschi et al., 2018). Tedeschi 외(2018)의 최신 외상 후 성 장 모델에 따르면, 침습적 반추가 의도적 반 추로 전환될 때 외상이나 침습적 반추로 인한

고통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 사건에 부여하는 의미가 변화하여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외상 사건으로 현재 경험 하고 있는 고통 수준은 최근의 의도적 반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indstrom et al., 2013).

이어서 주요 연구 결과를 논의하자면, 첫째, 대인 외상 경험자가 외상 경험에 대해 노출했 을 때 받은 부정적 반응은 핵심신념붕괴가 침 습적 반추를 거쳐 의도적 반추에 미치는 영향 을 조절하는 자기노출의 효과를 조절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부정적 반응이 직 면, 심사숙고, 재평가 과정과 같은 인지적 처 리를 방해하여 침습적 사고의 지속적 활성화 를 초래해, 핵심신념을 재구축하고 새로운 삶 의 서사를 형성하는 의도적 반추로 이어지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와 맥을 같 이 한다(Belsher et al., 2012; Lepore, 2001; Lepore & Helgeson, 1998; Littleton, 2010; Tedeschi et al., 2018). 또한 자기노출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자기노출과 의도적 반추 사이를 조절할 수 있 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지지되는 결 과이다(이하나, 2016; Koutrouli et al., 2016). 이 러한 결과는 대인 외상 경험자가 자기노출 시 받은 부정적 반응이 외상 경험자의 인지적 평 가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쳐, 외상 후 성장과 관련된 인지적 과정에 관여할 수 있음을 암시 한다고 볼 수 있다(Tedeschi et al., 2018; Ullman & Filipas, 2001). 이러한 가정과 연관하여 본 연구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먼저 부정적 반응의 수준이 낮고, 자 기노출의 수준이 높을 때, 침습적 반추가 높 아질수록 의도적 반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대인 외상 경험자가 자신의 외상 경험에 대해 타인에게 많이 개방하고 개방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적으면 적을수록, 침습적 반추의 증가가 억압이나 회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건을 적응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재구성하여 사건의 긍정적 부산물을 인식하는 의도적 반추로 이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Páez et al., 1999; Tedeschi et al., 2018). 다음으로 부정적 반응의 수준이 낮아질수록 조건부 조절된 매개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부정적 반응 수준이 낮은 경우에만 핵심신념붕괴가 침습적 반추를 매개하여 의도적 반추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노출이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낮은 부정적 반응 조건에서 자기노출 수준에 따라 매개효과가 달라지는지 살펴본 결과, 자기노출 수준이 높을 때 핵심신념붕괴,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 간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인 외상 경험자가 외상 후 성장으로 나아가는 인지적 과정은 외상 경험 노출과 부정적 반응의 상호작용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Ahrens 외(2007)는 자기노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사회적 반응의 유형이 부정적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달렸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외상 사건으로 긍정적 세계가 붕괴된 대인 외상 경험자가 외상 경험을 타인에게 밝힐 때, 침습적 반추가 의도적 반추로 이어져 붕괴된 핵심신념을 재건하고 성장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듣는 이의 부정적 반응이 적으면 적을수록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Tedeschi et al., 2018).

둘째, 긍정적 반응과 자기노출의 조절된-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에 가능한 이유는 긍정적 반응의 보호 효과가 부정적 반응의 해로운 효과에 비해 미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상 생존자들은 일반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대와 어긋나는 부정적 반응은 더 두드러지고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반면(Dworkin et al., 2019), 긍정적 반응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그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다. 한편, PTSD나 다른 정신병리로 인해 타인의 부정적 반응을 기대할 수도 있는데, 기대와 일치하는 부정적 반응은 세상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확증하여 부적응적일 수 있는 반면(Dworkin et al., 2019), 기대와 일치하지 않는 긍정적 반응은 과소평가하여 지나칠 수 있다. 이처럼 부적응적인 부정적 반응에 비해, 긍정적 반응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어쨌든 본 연구 결과는 노출에 대한 긍정적 반응의 유의한 효과보다 부정적 반응의 유해한 효과가 더 큰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Campbell et al., 2001; Ullman, 1996; Ullman & Peter Hagene, 2014).

연구 결과들에 따른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인 외상 경험자의 인지적 요인과 사회·관계적 요인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외상 후 성장과 관련된 인지적 과정을 폭넓게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국내에서 외상 후 성장과 관련하여 더 자주 다뤄졌던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 반응과 같은 긍정적 사회적 요인의 증가보다(신선영, 정남운, 2012; 심기선, 안현의, 2014; 최승미 외, 2013; 한성아, 유성경, 2022, 황소연, 2021) 부정적 반응과 같은 부정적 사회적 요인의 감소가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긍정적 사회적 요인에 방점을 두었던 이유 중 하나는 기존의 사회적 반응을 측정하는 도구가 주로 사회적 지지 척도였으며, 부정적 사회적 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심기선, 안현의, 2014). 그러나 사회적 반응을 포괄적으로 측정

하는 척도가 국내에서 번안 및 타당화된 이후에도 외상 후 성장 과정에서 긍정적 사회적 반응의 역할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많았다(김현정, 김수임, 2023; 한성아, 유성경, 2022; 황소연, 2021). 이는 아직까지는 긍정적 사회적 요인에 대한 경험적 근거 수집이 더 수월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외상 후 성장 과정에서 긍정적 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부정적 사회적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의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긍정적 사회적 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와는 다른 방식으로 연구하여 상이한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긍정적 반응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성장적 반추를 활성화시키고 외상 후 성장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거나(신선영, 정남운, 2012), 사회적 지지가 인지적 대처와 행동적 대처를 거쳐 외상 후 성장에 간접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최승미 외, 2013). 또는 심리적 수용이나 외상 후 성장 또는 심리적 성장 과정에서 긍정적 사회적 반응의 역할을 강조하였다(김현정, 김수임, 2023; 한성아, 유성경, 2022; 황소연, 2021). 본 연구에서 기존 연구들과는 다르게 연구 범위를 대인 외상에 한정하고, 보다 복합적인 과정 속에서 긍정적 반응을 부정적 반응과 함께 살펴본 결과, 긍정적 반응의 유의한 효과가 미약할 수도 있다는 점이 시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반응의 감소를 강조한 본 연구 결과는 대인 외상 경험자의 외상 후 성장 과정에 대한 관점을 사회적 네트워크로 확장하고, 임상적 적용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연구 결과는 일상적 장면이나 치료 장면에서 누군가가 과거에 성폭력이

나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같은 대인 외상 경험을 밝혔을 때 그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심리 내적인 인지적 과정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상 경험자를 낙인찍거나 통제하는 것, 경험자의 외상 처리를 방해하는 것, 경험자를 비난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 반응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인 외상 경험자에 대한 개입에서 사회적 네트워크 구성원들 혹은 치료자가 자기노출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하지 않도록 교육할 수 있다면, 경험자의 외상 후 성장 수준을 높이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Ullman & Peter Hagens, 2014). 이러한 접근은 실제로 대인 외상 경험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초점을 사회적 네트워크에 두고 있는 치료적 접근과 일치한다(Edwards et al., 2021; Goodman & Smyth, 2011; Waterman et al., 2022).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Edwards 외(2021)는 외상 경험 노출에 대한 긍정적 반응은 늘리고 부정적 반응은 줄이는 것을 목표로 비공식 지원자들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인 Supporting Survivors and Self(SSS)개입을 제안한다.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Edwards et al., 2022). SSS개입은 2시간의 세션과 90분의 부스터 세션으로 진행되며, 듣기(hearing), 공감(empathy), 일치시키기(align), 자원(resources), 감정에 머물기(stick with feelings), 스스로를 지원하기(support oneself) 섹션으로 구성된다. 듣기 섹션은 기본적인 경청 기술 과정을 포함하고, 공감 섹션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도움이 되는 이유와 부정적 반응이 도움되지 않는 이유, 말해야 하는 것과 말하지 않아야 하는 것의 예시 등의 정보들이 제공된다. 일치시키기 섹션에서는 외상 경험자의 욕구와 일치하는 반응을 하는 방법에 대해 배운다. 자원 섹션에

서는 외상 경험자가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 정부의 자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우고 그 자원들을 경험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안해야 하는지를 교육받는다. 감정에 머무르기 섹션에서는 알코올 사용과 같은 주의 분산(distraction)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감정에 대처하는 방법의 중요성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지원하기 섹션에서는 비공식 지원가 자신의 욕구와 외상 경험자의 욕구 간의 균형 맞추기의 중요성에 대해 다룬다. 이러한 SSS개입과 본 연구 결과를 실제에 적용한다면, 외상 경험 개방에 대한 부정적 반응 감소를 목표로 하면서 보편적 개입으로서 학교나 직장 등에서 이러한 내용을 관련 교육에 포함할 수 있고, 특정적 개입으로서 워크숍 형태로 치료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교육하거나, 치료자가 대인 외상 경험자의 가족 및 친구에게 단기 교육의 형태로 이러한 내용을 제공할 수 있겠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온라인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회고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기억의 본질적인 특성상 응답이 다소간 왜곡되어,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특히 대인 외상을 포함한 외상 경험과 외상 후 성장을 회고적 보고로 측정하는 것은 편향된 보고의 가능성 때문에 신뢰롭고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Bardeen & Benfer, 2019; Corman et al., 2021; Frazier et al., 2009; Infurna & Jayawickreme, 2019). 그러나 실제로 외상 경험자들이 외상 경험을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드물게 일어나는 편향 때문에 회고적 연구 결과를 무효화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Hardt & Rutter, 2004). 다수

의 연구가 이를 지지하면서 외상 경험과 관련 변인의 측정이 충분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지닌다고 보고한 바 있다(Carlson et al., 2011; Hosang et al., 2023; Wittbrodt et al., 2020). 회고적 연구에 대해 신뢰도 및 타당도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회고적 연구는 예비 데이터를 제공하고 전향적 후속 연구의 밑그림을 그린다든 점에서 분명한 유용성을 지닌다(Tofthagen, 2012).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신뢰도 및 타당도를 갖춘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테면, 대인 외상 경험을 측정할 때,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졌고, 누가 관여했는지와 같은 구체적 정보를 포함해 경험을 적도록 하고, 기록한 경험이 외상 경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여러 후속 질문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Bardeen & Benfer, 2019). 실험적인 방법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예컨대 침습적 반추를 조작하기 위해 연구자가 피험자에게 미리 수집한 피험자별 외상 스크립트를 읽어준 뒤 침습적 반추를 유도하는 오디오를 재생하는 방법과 같은 것들이 활용될 수 있다(Wisco et al., 2023). 둘째, 본 연구는 동일 시점에서의 설문 연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인 외상 경험자의 핵심신념붕괴와 다른 변인 간 인과관계나 시간적 관계성을 입증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종단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지친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18개월 동안 외상 후 성장의 인지적 과정에 대한 종단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다(Zhou & Wu, 2016).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 외상 후 성장 변인을 6개월 간격으로 세 시점에서 조사하였고, 그 결과 반추들과 외상 후 성장 간 시간적 관계성을 밝힐 수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 이러한 종단

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본 연구 결과를 다시 검증해 볼 수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 경과 시간을 더미코딩하여 통제하였으나, 경과 시간에 따른 외상 후 성장의 정도나 특징이 다르기에(임선영, 권석만, 2013; 최승미, 2008), 5년 이내 혹은 10년 이내라는 적절한 경과 시간을 두어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가 측정된 핵심신념붕괴,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 자기노출, 사회적 반응은 외상 경험 직후의 것인지, 최근 경험의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각 척도에 응답할 시점을 명료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섯째, 본 연구 분석에 사용된 최종 표본은 대인 외상을 경험한 만 18세 이상의 국내 성인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본 연구 결과가 반복 검증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외상 후 성장 과정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성별, 종교의 유무, 외상 이후 경과 시간, 현재의 고통 수준을 통제하고 살펴본 결과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본 연구와 같이 잠재적으로 각 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미리 확인하여 통제하지 않는다면, 반복 검증이 어려울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외상 후 성장 과정을 구성하는 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미리 확인하여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아주 높은 수준의 고통과 연관될 수 있는 애착외상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이수림, 2017). 본 연구에서는 명확하게 부모 관련 애착외상을 구분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아, 애착외상 여부에 따른 외상 당시의 고통 또는 현재의 고통 수준 차이를 분석하기 어려웠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전에 애착외상 범주를 구분하여 데이터를 수집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애착외상집단과 비애착외상집단 간 외상 당시의 고통 및 현재의 고통 수준 차이를 분석한 후, 애착외상 여부를 통제변인으로 고려해볼 수 있겠다.

## 참고문헌

- 고은심, 이민규 (2018). 침습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방략과 의도적 반추의 간접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3), 785-800.  
<http://dx.doi.org/10.17315/kjhp.2018.23.3.010>
- 김가령, 박준호, 이민규 (2018).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이 초기 성인기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수용과 자기체계 손상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4), 1051-1073.  
<http://dx.doi.org/10.17315/kjhp.2018.23.4.012>
- 김나현, 김정민 (2021). 성인의 침습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의도적 반추 및 시간관의 이중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21(1), 93-115. <https://www.earticle.net/>
- 김명지 (2019). 시간관과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 대처 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5(4), 319-338.  
<http://dx.doi.org/10.15842/cprp.2019.5.4.319>
- 김민철, 허준수 (2023). 학대피해노인의 외상 후 성장에 관한 구조모형 연구. *한국노년학*, 43(1), 79-107.  
<http://dx.doi.org/10.31888/JKGS.2023.43.1.79>
- 김시형, 임수정, 신지영, 이덕희, 이동훈 (2020). 외상 후 성장 척도 확장판(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Expanded: PTGI-X)의 한국판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 사회문제, 26(3), 195-220.  
<http://dx.doi.org/10.20406/kjcs.2020.8.26.3.195>
- 김은진 (2015). 녹내장 환자의 자기노출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 *한국계슈탈트상담연구*, 5(1), 41-57. <https://kiss.kstudy.com/>
- 김현정, 김수임 (2023). 반려동물 상실경험 자기개방이 심리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사회적 반응과 의도적 반추의 순차적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4(4), 107-131.  
<http://dx.doi.org/10.15703/kjc.24.4.202308.107>
- 노미애 (2021). 관계상실 경험자의 사건충격이 외상 후 성장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반추의 매개효과와 자기노출 및 적응적, 부적응적 완벽성향의 다집단 조절효과.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https://www.riss.kr/link?id=T15936953>
- 박애실 (2016). 외상 후 인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의 이중매개효과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7(5), 181-200.  
<http://dx.doi.org/10.15703/kjc.17.5.201610.181>
- 박준호 (2007).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반복생각, 생각억제 및 자기노출이 정서와 주관 안녕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https://www.riss.kr/link?id=T11043133>
- 박지은, 정남운 (2016). 외상후 부정적 인지와 외상후 성장의 관계에서 용서의 조절효과: 대인관계 외상 경험자를 중심으로. *인간이해*, 37(2), 167-185. <https://kiss.kstudy.com/>
- 설지윤, 김창대, 고유림 (2019). 글쓰기가 대인간 외상 경험자의 자서전적 기억 특성, 인지적 재평가와 정서반응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20(3), 99-120.  
<https://kiss.kstudy.com/>
- 송란, 신희천, 김은정 (2021). 사건중심성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의도적 반추와 자아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21(3), 383-407.  
<http://dx.doi.org/10.33703/cbtk.2021.21.3.383>
- 송승훈 (2007).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K-PTGI)의 신뢰도와 타당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https://www.riss.kr/link?id=T10915671>
- 신선영 (2009). 삶의 의미와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성장적 반추를 매개변인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https://www.riss.kr/link?id=T11543122>
- 신선영, 정남운 (2012). 삶의 의미와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성장적 반추를 매개 변인으로. *인간이해*, 33(2), 217-235.  
<https://www.kci.go.kr/kciportal/main.kci>
- 심기선, 안현의 (2014). 한국판 외상경험 개방에 대한 사회적 반응 척도(K-SRQ)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271-296.  
<https://www.kci.go.kr/kciportal/main.kci>
- 심솔지, 주은선 (2022). 20-30대 여성의 외상 경험과 포커싱적 태도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외상 유형별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30(3), 220-244.  
<https://www.kci.go.kr/kciportal/main.kci>
- 안현의, 주혜선, 민지원, 심기선 (2013). 한국판 사건관련 반추 척도(K-ERRI)의 타당화. *인지행동치료*, 13(1), 149-172.



- <https://www.kci.go.kr/kciportal/main.kci>  
윤명숙, 김남희 (2013). 부모상실 대학생의 외상 후 성장 영향요인.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1(2), 177-201.  
<http://dx.doi.org/10.21479/kaft.2013.21.2.177>
- 이동훈, 김시형, 이수연, 최수정 (2018). 트라우마를 경험한 대학생의 지각된 사회적지지, 정서적 자기노출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2), 371-395.  
<http://dx.doi.org/10.23844/kjcp.2018.05.30.2.371>
- 이수림 (2013). 외상 유형이 외상후성장 및 지혜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대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3), 319-341.  
<https://scienceon.kisti.re.kr/main/mainForm.do>
- 이수림 (2017). 아동·청소년기 애착외상 경험 이후 외상후성장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43(1), 277-312.  
<http://doi.org/10.15820/khjss.2017.43.1.012>
- 이유경 (2019). 사건중심성과 핵심신념붕괴가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및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https://www.riss.kr/link?id=T15457745>
- 이하나 (2016). 성폭력 피해 경험자의 자기 개방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반응과 의도적 반추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https://www.riss.kr/link?id=T13965161>
- 이화여자대학교젠더법학연구소. (2020).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7&boardNo=7604966&menuLevel=3&menuNo=115>
- 임선영, 권석만 (2013). 역경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처리방략과 신념체계의 특성: 관계상실 경험자를 대상으로.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3), 567-588.  
<http://dx.doi.org/10.15842/kjcp.2013.32.3.006>
- 장진이 (2010). 반복적 대인간 외상 경험자의 자기체계 손상과 심리적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https://www.riss.kr/link?id=T12115177>
- 장한, 김진숙 (2017). 외상후성장과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18(5), 85-105.  
<http://dx.doi.org/10.15703/kjc.18.5.201710.85>
- 정유지 (2016). 외상 경험에 대한 긍정적 재평가 글쓰기가 반추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https://www.riss.kr/link?id=T14010293>
- 최승미 (2008). 외상 후 성장 관련 변인의 탐색.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https://www.riss.kr/link?id=T11276629>
- 최승미, 김영재, 권정혜 (2013). 인지적, 문제해결적 행동 대처 및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PTSD 증상 수준에 따라. *인지행동치료*, 13(2), 307-328.  
<https://www.earticle.net/>
- 한국여성의전화. (2023년 3월 7일). *2022년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 분석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의전화*. [http://hotline.or.kr/board\\_statistics/76834](http://hotline.or.kr/board_statistics/76834).
- 한성아, 유성경 (2022). 반려동물 상실 애도와 심리적 성장의 관계에서 의미재구성과 긍정적 사회적 반응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

- 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4(2), 623-642.  
<http://dx.doi.org/10.23844/kjcp.2022.05.34.2.623>
- 한순희 (2023). 대학생의 역경경험이 역경 후 스트레스 증상과 역경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자기노출, 의도반추의 이중순차 매개효과.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https://www.riss.kr/link?id=T16600568>
- 황소연 (2021). 삶의 의미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수용과 긍정적 사회적 반응의 조절된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https://www.riss.kr/link?id=T15872163>
- Ahrens, C. E., Campbell, R., Ternier-Thames, N. K., Wasco, S. M., & Sefl, T. (2007). Deciding whom to tell: Expectations and outcomes of rape survivors' first disclosur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1(1), 38-49.  
<https://doi.org/10.1111/j.1471-6402.2007.00329.x>
- Allen, J. G. (2005). *Coping with trauma: Hope through understanding* (2nd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https://books.google.co.kr/>
- Andrews, B., Brewin, C. R., & Rose, S. (2003). Gender, social support, and ptsd in victims of violent crim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6(4), 421-427.  
<https://doi.org/10.1023/A:1024478305142>
- Bardeen, J. R., & Benfer, N. (2019).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for assessing trauma history via self-report.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11(5), 505-512.  
<https://doi.org/10.1037/tra0000398>
- Belsher, B. E., Ruzek, J. I., Bongar, B., & Cordova, M. J. (2012). Social constraints, posttraumatic cognition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reatment-seeking trauma survivors: Evidence for a social-cognitive processing model.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4(4), 386-391.  
<https://doi.org/10.1037/a0024362>
- Bonnan-White, J., Hetzel-Riggin, M. D., Diamond-Welch, B. K., & Tollini, C. (2018). "You blame me, therefore I blame me": The importance of first disclosure partner responses on trauma-related cognitions and distres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3(8), 1260-1286.  
<https://doi.org/10.1177/0886260515615141>
- Campbell, R., Ahrens, C. E., Sefl, T., Wasco, S. M., & Barnes, H. E. (2001). Social reactions to rape victims: Healing and hurtful effects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health outcomes. *Violence and Victims*, 16(3), 287-302.  
<https://doi.org/10.1891/0886-6708.16.3.287>
- Cann, A., Calhoun, L. G., Tedeschi, R. G., Kilmer, R. P., Gil-Rivas, V., Vishnevsky, T., & Danhauer, S. C. (2010). The Core beliefs inventory: A brief measure of disruption in the assumptive world. *Anxiety, Stress & Coping*, 23(1), 19-34.  
<https://doi.org/10.1080/10615800802573013>
- Cann, A., Calhoun, L. G., Tedeschi, R. G., Triplett, K. N., Vishnevsky, T., & Lindstrom, C. M. (2011). Assessing posttraumatic cognitive processes: The 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 *Anxiety, Stress, & Coping*, 24(2), 137-156.  
<https://doi.org/10.1080/10615806.2010.529901>

- Carlson, E. B., Smith, S. R., Palmieri, P. A., Dalenberg, C., Ruzek, J. I., Kimerling, R., Burling, T. A., & Spain, D. A. (201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brief self-report measure of trauma exposure: The trauma history screen. *Psychological Assessment, 23*(2), 463-477.  
<https://doi.org/10.1037/a0022294>
- Corman, M., Rubio, M. T., Cabrespine, A., Brindel, I., Bay, J. O., De La Tour, R. P., & Dambrun, M. (2021).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measures of post-traumatic growth reflect different processes: Longitudinal evidence of greater decline than growth following a hematopoietic stem-cell transplantation. *BMC Psychiatry, 21*, 1-11.  
<https://doi.org/10.1186/s12888-020-03007-y>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https://doi.org/10.1037/1082-989X.1.1.16>
- David, G., Shakespeare-Finch, J., & Krosch, D. (2022). Testing theoretical predictors of posttraumatic growth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14*(3), 399-409.  
<https://doi.org/10.1037/tra0000777>
- Davis, R. C., Brickman, E., & Baker, T. (1991). Supportive and unsupportive responses of others to rape victims: Effects on concurrent victim adjust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9*(3), 443-451.  
<https://doi.org/10.1007/BF00938035>
- De Castella, R., & Simmonds, J. G. (2013). “There’s a deeper level of meaning as to what suffering’s all about”: Experiences of religious and spiritual growth following trauma. *Mental Health, Religion & Culture, 16*(5), 536-556.  
<https://doi.org/10.1080/13674676.2012.702738>
- Dworkin, E. R., Brill, C. D., & Ullman, S. E. (2019). Social reactions to disclosure of interpersonal violence and psychopatholog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72*, e101750.  
<https://doi.org/10.1016/j.cpr.2019.101750>
- Edwards, K. M., Waterman, E. A., Dardis, C. M., Ullman, S. E., Rodriguez, L. M., & Dworkin, E. R. (2021). A program to improve social reactions to sexual and dating violence disclosures reduces posttraumatic stress in subsequently victimized participants.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13*(3), 368-375.  
<https://doi.org/10.1037/tra0000927>
- Edwards, K. M., Waterman, E. A., Ullman, S. E., Rodriguez, L. M., Dardis, C. M., & Dworkin, E. R. (2022). A pilot evaluation of an intervention to improve social reactions to sexual and partner violence disclosur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7*(5-6), 2510-2534.  
<https://doi.org/10.1177/0886260520934437>
- Foa, E. B., Cashman, L., Jaycox, L., & Perry, K. (1997). The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he 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9*(4), 445-451.  
<https://doi.org/10.1037/1040-3590.9.4.445>

- Frazier, P., Tennen, H., Gavian, M., Park, C., Tomich, P., & Tashiro, T. (2009). Does self-reported posttraumatic growth reflect genuine positive change? *Psychological Science*, 20(7), 912-919.  
<https://doi.org/10.1111/j.1467-9280.2009.02381.x>
- Freedle, A., & Kashubeck-West, S. (2021). Core belief challenge, rumination, and posttraumatic growth in women following pregnancy loss.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13(2), 157-164.  
<https://doi.org/10.1037/tra0000952>
- Gerber, M. M., Boals, A., & Schuettler, D. (2011). The unique contributions of positive and negative religious coping to posttraumatic growth and ptsd. *Psychology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3(4), 298-307.  
<https://doi.org/10.1037/a0023016>
- Goodman, L. A., & Smyth, K. F. (2011). A call for a social network-oriented approach to services for survivor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Psychology of Violence*, 1(2), 79-92.  
<https://doi.org/10.1037/a0022977>
- Hardt, J., & Rutter, M. (2004). Validity of adult retrospective reports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Review of the evid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5(2), 260-273.  
<https://doi.org/10.1111/j.1469-7610.2004.00218.x>
- Hayes, A. F. (2018). Partial, conditional, and moderated moderated mediation: Quantification, inference, and interpretation. *Communication Monographs*, 85(1), 4-40.  
<https://doi.org/10.1080/03637751.2017.1352100>
- Hetzl-Riggin, M. D., & Roby, R. P. (2013). Trauma type and gender effects on ptsd, general distress, and peritraumatic dissociation. *Journal of Loss and Trauma*, 18(1), 41-53.  
<https://doi.org/10.1080/15325024.2012.679119>
- Hosang, G. M., Manoli, A., Shakoor, S., Fisher, H. L., & Parker, C. (2023). Reliability and convergent validity of retrospective reports of childhood maltreatment by individuals with bipolar disorder. *Psychiatry Research*, 321, e115105.  
<https://doi.org/10.1016/j.psychres.2023.115105>
- Infurna, F. J., & Jayawickreme, E. (2019). Fixing the growth illusion: New directions for research in resilience and posttraumatic growth.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8(2), 152-158.  
<https://doi.org/10.1177/0963721419827017>
- Koutrouli, N., Anagnostopoulos, F., Griva, F., Gourounti, K., Kolokotroni, F., Efstathiou, V., Mellon, R., Papastylianou, D., Niakas, D., & Potamianos, G. (2016).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growth, cognitive processing, psychological distress, and social constraints in a sample of breast cancer patients. *Women & Health*, 56(6), 650-667.  
<https://doi.org/10.1080/03630242.2015.1118725>
- Lepore, S. J. (2001). A social-cognitive processing model of emotional adjustment to cancer. In A. Baum & B. L. Andersen (Eds.), *Psychosocial interventions for cancer* (pp. 99-11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doi.org/10.1037/10402-006>
- Lepore, S. J., & Helgeson, V. S. (1998). Social constraints, intrusive thoughts,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7(1), 89-106.

- <https://doi.org/10.1521/jscp.1998.17.1.89>
- Lepore, S. J., Silver, R. C., Wortman, C. B., & Wayment, H. A. (1996). Social constraints, intrusive thought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bereaved m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271-282.  
<https://doi.org/10.1037/0022-3514.70.2.271>
- Lindstrom, C. M., Cann, A., Calhoun, L. G., & Tedeschi, R. G. (2013). The relationship of core belief challenge, rumination, disclosure, and sociocultural elements to posttraumatic growth.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5(1), 50-55.  
<https://doi.org/10.1037/a0022030>
- Linley, P. A., & Joseph, S. (2004). Positive change following trauma and adversity: A review.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7(1), 11-21.  
<https://doi.org/10.1023/B:JOTS.0000014671.27856.7e>
- Littleton, H. L. (2010).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and negative disclosure reactions on sexual assault victims: A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investigation. *Journal of Trauma & Dissociation*, 11(2), 210-227.  
<https://doi.org/10.1080/15299730903502946>
- Nolen-Hoeksema, S., McBride, A., & Larson, J. (1997). Rum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bereaved partn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4), 855-862.  
<https://doi.org/10.1037/0022-3514.72.4.855>
- Orchowski, L. M., & Gidycz, C. A. (2015). Psychological consequences associated with positive and negative responses to disclosure of sexual assault among college women: A prospective study. *Violence Against Women*, 21(7), 803-823.  
<https://doi.org/10.1177/1077801215584068>
- Páez, D., Velasco, C., & González, J. L. (1999). Expressive writing and the role of alexythimia as a dispositional deficit in self-disclosure and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3), 630-641.  
<https://doi.org/10.1037/0022-3514.77.3.630>
- Shakespeare-Finch, J., & Armstrong, D. (2010). Trauma type and posttrauma outcomes: Differences between survivors of motor vehicle accidents, sexual assault, and bereavement. *Journal of Loss and Trauma*, 15(2), 69-82.  
<https://doi.org/10.1080/15325020903373151>
- Taku, K., Cann, A.,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9). Intrusive versus deliberate rumination in posttraumatic growth across US and Japanese samples. *Anxiety, Stress & Coping*, 22(2), 129-136.  
<https://doi.org/10.1080/10615800802317841>
- Taku, K., Cann, A., Tedeschi, R. G., & Calhoun, L. G. (2015). Core beliefs shaken by an earthquake correlate with posttraumatic growth.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7(6), 563-569.  
<https://doi.org/10.1037/tra0000054>
- Taku, K., Tedeschi, R. G., Shakespeare-Finch, J., Krosch, D., David, G., Kehl, D., Grunwald, S., Romeo, A., Di Tella, M., Kamibepu, K., Soejima, T., Hiraki, K., Volgin, R., Dhakal, S., Zięba, M., Ramos, C., Nunes, R., Leal, I., Gouveia, P., ... Calhoun, L. G. (2021). Posttraumatic growth (PTG) and posttraumatic depreciation (PTD) across ten countries: Global validation of the PTG-PTD theoretical

- mode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9, e110222.  
<https://doi.org/10.1016/j.paid.2020.110222>
- Tedeschi, R. G., Shakespeare-Finch, J., Taku, K., & Calhoun, L. G. (2018). *Posttraumatic growth: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New York: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1315527451>
- Toftagen, C. (2012). Threats to validity in retrospective studies. *Journal of the Advanced Practitioner in Oncology*, 3(3), 181-183.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4093311/>
- Ullman, S. E. (1996). Social reactions, coping strategies, and self blame attributions in adjustment to sexual assault.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0(4), 505-526.  
<https://doi.org/10.1111/j.1471-6402.1996.tb00319.x>
- Ullman, S. E. (2000).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reactions questionnaire: A measure of reactions to sexual assault victim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4(3), 257-271.  
<https://doi.org/10.1111/j.1471-6402.2000.tb00208.x>
- Ullman, S. E., & Filipas, H. H. (2001). Predictors of ptsd symptom severity and social reactions in sexual assault victim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4(2), 369-389.  
<https://doi.org/10.1023/A:1011125220522>
- Ullman, S. E., & Peter Hagene, L. (2014). Social reactions to sexual assault disclosure, coping, perceived control, and ptsd symptoms in sexual assault victim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2(4), 495-508.  
<https://doi.org/10.1002/jcop.21624>
- Ullman, S. E., & Relyea, M. (2016). Social support, coping,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in female sexual assault survivors: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9(6), 500-506.  
<https://doi.org/10.1002/jts.22143>
- Waterman, E. A., Edwards, K. M., Baker, M. J., Ullman, S. E., Dardis, C. M., & Rodriguez, L. M. (2022). A mixed-method process evaluation of an intervention to improve social reactions to disclosures of sexual assault and partner abus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7(1-2), NP851 - NP877.  
<https://doi.org/10.1177/0886260520918585>
- Wisco, B. E., Vrshek Schallhorn, S., May, C. L., Campbell, A. A., Nomamiukor, F. O., & Pugach, C. P. (2023). Effects of trauma-focused rumination among trauma-exposed individuals with and without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 experiment. *Journal of Traumatic Stress*, 36(2), 285-298.  
<https://doi.org/10.1002/jts.22905>
- Wittbrodt, M. T., Vaccarino, V., Shah, A. J., Mayer, E. A., & Bremner, J. D. (2020).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Adulthood Trauma Inventory. *Health Psychology*, 39(8), 679-688. <https://doi.org/10.1037/hea0000856>
- Zhou, X., & Wu, X.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ruminati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posttraumatic growth among Chinese adolescents after earthquake: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93, 242-248.  
<https://doi.org/10.1016/j.jad.2015.12.076>

김연주 · 박기환 / 핵심신념붕괴,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 간의 관계에서 자기노출과 사회적 반응의 조절된·조절된 매개효과: 대인 외상 경험자를 중심으로

Zoellner, L. A., Foa, E. B., & Brigidi, B. D.  
(1999). Interpersonal friction and ptsd in  
female victims of sexual and nonsexual assault.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2*(4), 689-700.  
<https://doi.org/10.1023/A:1024777303848>

원고접수일 : 2024. 02. 22.  
수정원고접수일 : 2024. 04. 08.  
게재확정일 : 2024. 04. 11.

## Moderated-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elf-Disclosure and Social Reaction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re Belief Disruption, Intrusive Rumination, and Deliberate Rumination: A Study on Adults with Interpersonal Trauma Experience

Yeonjoo Kim<sup>1)</sup>

Kee-Hwan Park<sup>2)†</sup>

<sup>1)</sup>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M.A.

<sup>2)</sup>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rofessor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whether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elf-disclosure varies depending on the level of social reactions. The data of Korean adult participants, who had experienced an interpersonal traumatic event within 20 years, reported subjective distress with a score of 5 or higher at the time, and had engaged in self-disclosure experience were analyzed. Interpersonal Trauma Checklist, Core Beliefs Inventory, Rumination Inventory, Self-disclosure Inventory, and Social Reactions Questionnaire were used to measure main variables.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a significant moderated-moderated mediating effect involving self-disclosure and negative social reactions was observed. However, positive social reactions did not moderate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elf-disclosure. These results underscore the significance of socio-relational factors, such as social reactions, in the posttraumatic growth process among individuals who have experienced interpersonal trauma. This study's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interpersonal trauma, core belief disruption, rumination, self-disclosure, social reactions

---

† Corresponding Author : Kee-Hwan Park /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rofessor / 43, Jibong-ro, Bucheon, Korea / Tel: 02-2164-4924 / E-mail: psyclinic@catholic.ac.kr